

**담당 :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: 02)560-4448 ㅣ Mobile : 010-7680-310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‘제15회 롯데 오픈’ 2R 오전조 주요 선수 코멘트**

**최가빈, 이세희, 이승연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제15회 롯데 오픈 |
| 2 | 기 간 | 2025년 7월 3일(목) ~ 7월 6일(일) |
| 3 | 장 소 |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[미국(OUT) / 오스트랄아시아(IN)] |
| 4 | 주 최 | 롯데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2억 원 (우승상금 2억 1천6백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684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32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이가영, 고지우, 이예원, 최혜진, 김효주, 박현경, 이동은, 홍정민, 방신실, 노승희  김민선7, 정윤지, 김민주, 박보겸, 최예림, 성유진, 장하나, 이정민, 황유민, 이소영  김시현, 정지효 등  [‘제15회 롯데 오픈 퀄리파잉 토너먼트’ 상위자격 출전자]  - 프로: 고지원, 김나영2, 김윤경2, 박예지, 백소원, 서하영, 손연정, 송가은,  송민교, 신지원2, 심지연, 양진서, 장은수, 정세진, 정지현, 허윤서 / 16명  - 아마추어: 안윤주(A), 양윤서(A), 최정원(A) / 3명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  [2라운드] 11시 ~ 17시  [3라운드] 10시 ~ 16시  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최가빈 2라운드 중간합계 9언더파 135타(68-67) \*12시 40분 기준 단독 선두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391>

**경기 소감?**

초반엔 공격적으로 잘 풀려서 좋았는데, 후반으로 갈수록 그린이 선수들이 많이 지나가서인지 조금씩 올라왔는데, 그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해서 퍼트가 짧았던 게 아쉬웠다.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.

**성적에 기복이 있는데, 이유는?**

결과 왜 그렇게 됐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다.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, 어떤 날은 안 풀려서 컷 탈락하고, 또 어떤 날은 잘 풀린다. 저는 괜찮은데 특별한 원인은 없는 것 같다.

**내일 경기?**

1,2라운드와 비슷할 것 같다. 바람이 안 불면 공격적으로, 바람이 불면 찬스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한다.

**현재 컨디션?**

저녁엔 많이 힘든데, 대회장에 오면 신나서 그런지 힘든 걸 잊는다. 오늘은 3시 반에 일어나서 좀 피곤하다. 일단 낮잠부터 잔 후에 샷 연습이랑 퍼트 연습 좀 골고루 하고 일찍 마무리할 생각이다.

**◈ 이세희 2라운드 중간합계 7언더파 137타(71-66) \*\*12시 40분 기준 단독 2위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652>

**오늘 경기 소감?**

어제까지만 해도 퍼트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 버디 찬스를 여러 번 놓쳤다. 라운드가 끝난 뒤에 삼천리 부단장님, 코치님(김해림)이랑 함께 퍼트에 대해 점검했고, 템포나 그린 읽는 법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.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연습을 했더니 오늘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.

**이 코스를 작년에도 플레이했는데, 작년과 비교해본다면 어떤 느낌인가?**

전반적인 느낌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. 코스의 분위기나 흐름이 비슷하게 느껴진다.

**어제와 오늘 경기를 치르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을 각각 꼽아본다면?**

아쉬웠던 부분은 전반적으로 퍼트가 잘 안 됐던 점이다.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퍼트가 잘 들어가서 그 불만은 사라졌다.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샷 감각인데, 샷 감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처럼만 유지한다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.

**내일 무빙데이와 최종라운드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?**

바람이 많이 불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서, 아무리 샷 감이 좋더라도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공략이 필요하다. 에임이나 오조준 등을 잘 계산해서 플레이하겠다.

**이번 대회에서의 목표와 각오가 있다면?**

지난 '맥콜 · 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' 때 ‘잘할 수 있겠다’는 자신감이 있었는데, 최종라운드가 아쉬웠다. 이번 주에는 그런 아쉬움 없이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싶다.

**그런 마무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?**

멘탈이라고 생각한다. 조급해하지 않고,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무리해서 핀을 바로 노리기보다는 몸 상태와 조화를 이루는 전략적인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본다.

**◈ 이승연 2라운드 중간합계 6언더파 138타(70-68) \*\*12시 40분 기준 공동 3위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859>

**오늘 버디 6개, 보기 2개를 기록했다. 오늘 경기는 전체적으로 어땠는지?**

오늘 버디를 6개나 했는지도 몰랐다. 이른 시간에 티오프하면서 몸이 피곤했고, 초반에는 집중이 흐트러진 느낌이었다. 보기 2개는 파로 막을 수 있던 거였는데,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.

**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본인만의 리셋 방법이 있는지?**

집중이 흐트러지는 이유도 다양한데, 오늘처럼 몸이 무겁고 잠에서 덜 깬 느낌일 때는 커피를 마시는 편이다. 각성이 돼서 오히려 몸을 깨워준다.

**오늘 경기에서 승부처라고 느낀 홀은 어느 홀이었나?**

16번 홀에서 첫 보기를 기록한 뒤, 바로 이어진 17번 파3홀에서 버디한 게 승부처 홀이다. 17번 홀에서 버디를 잡지 못했다면 18번 파5홀에서 무조건 버디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, 17번 홀에서 버디해서 18번 홀을 좀 더 편하게 공략할 수 있었다.

**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, 올 시즌 상반기를 스스로 평가해본다면?**

프로 데뷔 이후 가장 좋지 않았던 상반기였다. 시즌 절반이 지나가는데 성적이 안 따라줘서 정말 막막했는데, 지난주 '맥콜 · 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' 때부터 감을 잡기 시작했고, 비록 우승은 놓쳤지만 탑텐에 들면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. 남은 상반기도 잘하고 싶다.

**내일은 무빙데이다.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인가?**

지키기보다는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 버디 찬스를 적극적으로 만들고,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데 집중하겠다.